

오전 11시	인도 : 최세열목사
◆경배와 찬양의 예배◆	
※ 입례송 621장(찬양하라 내 영혼아)..... 다 같이
※ 예배부름 인도자
※ 예배기원 인도자
※ 경배찬송8장(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다 같이
※ 교독문 31(시편 68편) 다 같이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같이
찬송 64장(기뻐하며 경배하세) 다 같이
예배기도 1부 박기환집사 2부 강항구장로
응답송 찬양대
이달의찬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다 같이
협력기도 / 한마음기도 / 중보기도 다 같이
* 하나님의 창조섭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 하나님의 감동과 치유와 복을 주옵소서.	
◆말씀 듣는 예배◆	
성경봉독 창세기 1:26-28..... 정숙자권사
찬양 임마누엘찬양대
말씀선포	<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 > 최세열목사
기도 설교자
◆응답하는 예배◆	
찬송425장(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다 같이
봉헌 (8 구역) 다 같이
봉헌기도 담임목사
친교와소식 말은이
※ 찬송 1장(만복의 근원 하나님) 다 같이
※ 축도 최세열목사
※ 축복송 찬양대
*표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예배 후에 다섯분 이상, 15분이상 서로 친교 하십시오.”	

찬양예배 / 오후2시		수요예배 오후7:30분		새벽기도회(월-금)	
인도 / 최세열목사		인도 / 최세열목사		새벽 5:00	
찬양 / 다함께		찬양 / 다함께		인도 : 담임목사	
기도 / 김순남권사		기도 / 한마음기도		(마가복음강해)	
본문 / 딤후 3:14-17		본문 / 뵤전2:1-10		금요기도회	
말씀 / 최세열목사		말씀 / 최세열목사		금요일 오후 9시	
바울 목회자 7스피릿/제4과정		“하나님의 백성답게”		소예배실에서 모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주기도문 / 다같이			
목숨을 거는 목회자“					
주기도문 / 다함께					
예배위원	안내위원	류종란 황경숙 김한순 김금자	다 음 주 기 도	1부	선우명환집사
		김혜경 김영란 김기수 노대성		2부	남신도회
	헌금위원	9월 공영순 신혜영 김근중 이중열	다 음 주 성경봉독	1부	인도자
		10월 김예자 박상귀 이완수 김장숙		2부	남신도회
식당봉사	금주 에스더A	다음주 에스더B	다음주 찬양예배기도	김예자권사	
헌신찬양	금주	8 구역	다음주	남신도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 / 창세기 1:26-28절

자연의 생명들이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섭리를 지킬 때 아름답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 질서가 깨어지면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자연의 혼란보다 더 심각한 것은 사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섭리를 따라 살아가지 않을 때 자연과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하나님의 창조질서 안에서 자신을 볼 줄 알아야 하고, ‘인간의 진정한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에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1. 인간은 흙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창2: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수많은 재료 중에 흙으로 지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흙은 죽음의 의미(인간의 유한성)를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흙으로 창조된 인간은 언젠가는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 때 인간은 하나님을 찾고 영원을 소망하게 됩니다. 창4:26절을 보면 에노스 때에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은 “죽을 수 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으로, 인간이 죽음의 의미를 알게 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둘째, 흙은 생명의 법칙을 가르쳐 줍니다.

이 땅의 모든 생물은 흙에서 나는 것을 먹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곧 생명성으로서 생명의 법칙을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흙의 생명법칙은 섬김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인자(사람의 아들)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는 곧 참 사람이 되심을 선언하신 것이고 흙의 생명법칙인 섬김의 삶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맡겨 주신 사역은 하나님의 세계를 섬기라고 하신 것입니다. 흙으로 지으신 것은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 인간은 영성을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창2:7절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고 했습니다. 이 생기는 곧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흙으로 지어진 동시에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육체를 위한 양식만이 아니라 영을 위한 양식을 함께 먹어야 참 사람의 사람을 살아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사람의 관심은 영적인 것에 있어야 합니다. 유대의 한 부자청년과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하여 질문했던 것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참 모습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 수 있어야 합니다.

3.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 받은 존재입니다.

본문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는 책임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가운데서 형상(image)이란 어떤 사물과 그것을 그린 그림이 서로 닮은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찾아볼 수 있는 닮은꼴을 의미하고, 모양(likeness)이란 추상적인 면에 있어서 유사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인간전인이 하나님의 성품과 영향을 받아서 창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책임을 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인격을 부여받은 자로서 도적인 존재, 인격적인 존재, 사회적인 존재, 관계적인 존재가 되고, 모든 것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창조절 셋째 주(2014.9.19.)

제38과 하나님이 낳으셨다(창세기 1장 26-31절)

(함께 읽을 말씀 : 요한일서 3장 1-10절, 누가복음 12장 4-7절)

말씀묵상

1.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인간은 누구이며, 어디서 왔나?"를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물학적인 기원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만이 던지고 탐구하는, 자기 정체성의 물음, 종교적인 물음입니다. 우리의 기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이 모임이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지금 여러 이유로 어둠과 절망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탄식하는 우리 인생과 세계 위에 하나님의 영이 돌면서 신바람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는 "아멘!"하면서 어둠을 박차고 나옵니다.

2. 창세기 말씀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의 '형상'과 '모습'대로 인간을 내셨으며, 이 사람을 통해 못 생명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대목입니다. 창세기의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깊이 있게 통찰해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는 누구인가를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생명을 내실 때는 그 대상을 향해 단지 “~생겨라”하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담아 주셨습니다. 이로써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생김새도 속성도 하나님을 닮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닮은 채 나온 사람의 창조에 대해 과감히 “하나님이 낳았다”고 선언합니다(시2:7, 눅3:22, 행13:33, 히1:5, 5:5).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으로부터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첫 사람 아담을 “하나님의 아들” 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인간은 자녀다' 하는 선언 은 인간의 존엄한 기원을 말해줍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두려운 하나님을 참새 한두 마리도 아끼시는 자애로운 분으로 알려주십니다. 참새 한두 마리도 아끼시는 하나님에게 인간은 얼마나 더 소중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사랑이 무궁하신 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3. 우리는 누구인가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이 모임 안에서 "할렐루야! 우리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하고 크게 응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넘어지고, 실패하고, 갇혀 있느냐? 들으라! 너의 아버지인 나는 네 머리카락 한 올까지 세고 있다. 나에게 너는 천하보다 더 귀한존재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일어나서 이 사랑의 주님을 힘차게 찬양합시다. 그리고 곳곳에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뜻을 알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증언이 들리는 곳마다 새로워지는 힘찬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냐 오늘 등록하신 분,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예배 후에 제직회로 모입니다. 모든 제직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다음 주일은 총회가 제정한 남신도회주일입니다. 남신도회는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해든솔 선교활동을 은혜 중에 다녀왔습니다. 함께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9 월의 행사

1. 남신도주일(평신도 참여예배) - 9월 21일 / 남신도회
2. 제직회 : 9월 14일
3. 해든솔선교활동 9월 13일
4. 노회
 - 남신도회주관 목회자위로회(9.18일 / 원천교회)
 - 경기5개노회 노회원체육대회(9.15일 /군포)
5. 한국기독교장로회 제99회총회 :
 - 9월 23일 - 26일 / 변산대명리조트
 - 주제 : 하나님과 세상 앞에 참회하는 교회

향기로운 예물과 봉사

- 십 일 조 : 박상귀 공영순 박세일 김선주 원혜경 나금옥 조종순 이상호 주근희 신공님 김동기 김보경 김영란B 이용훈 함경숙 서영자 이종열 박현순
- 감사헌금 : 명일역 양회임 이은구 이용훈 김영숙 이진구 최하은 강항구 류종란 홍보연 홍석규 홍강의 김성희 박지영 박지국 이영란 이종춘 심문자 윤종원 김지환가정 (일천번제) 김동현
- 건축헌금 : 박상귀 공영순 강공균 김현아 이종열 박현순 에스더회
- 비전씨앗 : 강항구 류종란 강동균 김현아 김태라 배영민

구역 예배를 통한 복음전파

구역	인도자	구역장	모인곳	인원	헌 금	성경	모일곡	구역	인도자	구역장	모인곳	인원	헌 금	성경	모일곡
1	박홍만	김금자	양석임	3	9,000	10	이현목	7	강은순	이영선	강은순	4	11,000	60	김숙희
2	정정희	김한순	이경희	4	17,000			8	김순남	오복실	여순애	6	30,000	80	
3	이준호	함경숙	신공님	3	20,000	200	함경숙	9	김인순	이영란	한미경	4	11,000	200	김미연
4	김기희	최경선						10	장영분	노순영	김애경	4	26,000	75	
5	이문순	원혜경	이문순	2	10,000	100	원혜경	계				46	144,000	475	
6	류종란	김애자	교회	2	10,000	55									

예배시간안내

구분	요일	시간	장소	구분	요일	시간	장소
주일예배	주일	오전9시,11시	본당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9시	소예배실
찬양예배	주일	오후 2시	본당	어린이예배	주일	오전11시	종합교육실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소예배실	청소년예배	주일	오전11시	소예배실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시	소예배실	청년부	주일	오후 2:30	사무실

미켈란젤로의 사인 없는 작품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 (Michelangelo Buonarroti: 1475~1564)는 이탈리아의 조각가, 건축가, 화가, 시인입니다. 그는 살아 있는 동안에는 물론 현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세기에 걸쳐 가장 위대한 예술가의 한 사람으로 추앙받아왔습니다. 그가 남긴 수많은 회화·조각·건축 작품들은 현존하는 가장 유명한 작품들로 손꼽힙니다. 그중 오늘날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시스티나 예배당의 천장화임에도 불구하고 미켈란젤로는 스스로를 무엇보다도 조각가라고 여겼다. 그는 평생 대리석 조각에 몰두했으며 단지 일정 기간만 다른 분야의 예술작업을 했을 뿐이다. 특이한 것은 그는 그의 작품에 사인(sign)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화가이지만 고집이 세고 자신의 작품에 대해서는 자부심이 대단히 강하였습니다. 그는 아무리 많은 돈을 주어도 내키지 않으면 결코 작품을 제작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모 마리아가 죽은 예수를 끌어안고 슬퍼하는 <피에타>상을 제외하고는 그는 어느 작품에도 사인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인을 남기지 않은 것은 바티칸의 시스티나성당의 천장에 <천지창조>를 그리던 때와 관련이 있습니다.

1508년 미켈란젤로는 교황 율리우스 2세의 명령으로 시스티나성당의 천장화를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성당 출입을 막고 무려 4년 동안이나 성당에 틀어박혀 그림을 그렸습니다. 천정에 그림을 그려야 했기 때문에 그는 천정 밑에 세운 작업대에 앉아 고개를 뒤로 젖힌 채 천장에 물감을 칠해나가야 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고된 작업이었습니다. 4년 동안이나 계속된 작업 때문에 나중에는 목과 눈에 이상이 생길 정도이었지만 그는 온 정성과 열정을 다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이 완료되자 그는 마지막으로 그 그림에 사인을 한 뒤 흡족한 표정으로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성당 밖으로 나와 지친 몸을 편히 쉬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4년이나 일했던 성당 문을 나서다 그는 눈앞에 전개된 눈부신 햇빛과 쏟아지는 찬란한 빛을 보며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눈부신 햇살, 높푸른 하늘, 높게 날고 있는 새들, 정원의 아름다운 꽃들 그 어느 하나라도 감동적이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아무리 뛰어난 화가라도 눈앞에 있는 대자연의 모습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미켈란젤로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신은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고도 어디에도 자신의 숨씨임을 알리는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그런데 너는 기껏 작은 벽화 하나를 그려 놓고 자신을 자랑하려 서명을 하는 구나.'

그는 즉시 성당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작업대 위에 서서 자신의 사인을 지웠습니다. 미켈란젤로는 그 후 부터는 그 어느 작품에도 자신의 사인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인 자연을 들여다보면 풀 한포기 속에서도 숨겨진 하나님의 숨씨를 알아 볼 수 있습니다.

원천교회비전선언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한 몸이 되고, 한 몸 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따라 교회에서 헌신하고, 세상에서 선교 한다”

2014-37

2014.9.14.

9월의 기도 - 창조절 첫째주일

높은 하늘에는
주님의 영광으로 채우시고
무르익은 들녘에는
주님의 은총으로 넘쳐나게 하신 주님.
이 예배를 통해 죄 사함을 받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주님께서서는 측량하지 못할 사랑으로
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대속의 십자가로써 화해의 대로를 열어주셨나이다.

하오나 주님,
부끄럽게도 저희는 하나가 되지 못했나이다.
우리의 욕심으로 주님을 배척하고,
우리의 욕심으로 세상을 외면하고
우리의 욕심으로 이웃과 불화하고
우리의 욕심으로 자연을 파괴하고
제 욕심만 채우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먼저 하나 되게 하소서.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주님 안에 한 지체로 살게 하소서.

주님 앞에 참회하여 속죄함을 얻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되고,
가진 이들과 못 가진 이들이 어우러지고,
슬픔과 기쁨도 한마음으로 나누게 하소서.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담임목사 : 최세일(imcsr@hanmail.net)

시무장로 : 박홍만 강항구

교육전도사: 강은순, 이경훈 지휘:김영란 반주:안진영